

‘친일작가 작품’ 전봉준 장군 동상 철거 착수

황도전적지에 김경승 제작

문화재청 형상변경 허가 승인

정읍시, 시민·사회단체 요구 수용

전문가 자문 거쳐 새 동상 제작 나서

친일 작가 작품이란 지적을 받아온 정읍시 황도전적지의 전봉준 장군 동상이 철거된다.

정읍시는 전봉준 장군 동상 철거에 따른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 승인이 완료돼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987년 10월 정읍시 덕천면 황도현전적지에 건립된 전봉준 장군 동상은 친일 조각가 김경승(1915~1992)이 제작했다.

동상과 배후 부조 시설물은 화강암 받침대 위에 높이 6.4m, 좌대 3.7m, 형상 3.7m 규모로 건립됐다.

김경승이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인 까닭에 동학 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줄곧 철거를

요구해 왔다. 특히 몸체는 격문을 든 농민군 지도자의 모습이지만 머리는 죄수처럼 맨상투로 돼 있어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상 철거를 결정했고, 철거된 동상은 박물관으로 옮기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한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어긋나는 기념사업을 철거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철거 이후 새롭게 제작될 동상은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사상과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동상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황도현전적(사적 제295호)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관군과의 최초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역사적인 장소로 이를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황도현 전승일’을 기리기 위해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하고 매년 국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친일 작가 작품이라는 지적을 받아 철거 작업이 예정된 정읍시 덕천면 황도현전적지 내 전봉준 장군 동상. <정읍시 제공>

홍보 동영상 제작해 드립니다

남원시 농업 가공사업장 6곳 모집

남원시는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 홍보 동영상 제작 참가 사업장 6곳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남원시 소재 농업인 가공사업장이면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작업장 면적이 100㎡ 이내, 가공사업 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이다.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 사업은 모집 사업장 제품을 활용해 30초 정도의 농식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올해 추석 한달 전부터 추석까지(8월 21일~9월 20일) 서울 지하철 광고매체에 홍보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창업 이후 판로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가공사업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



군산시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과업 목적과 검토용역 내용 등을 보고했다. <사진>

지난 19일 열린 보고회는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를 책임연구자로 문화예술단체와 전문가, 대학교, 시의회, 민간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오는 8월 말까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추진기관으로 재단의 역할, 조직, 인력, 예산 등의 구성·운영방안과 경제성, 수행방식의 적절성, 파급효과 검토 등을 목적으로 연구 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군산시 문화예술 현황 분석과 재단의 역할 및 필요성, 비전 및 운영방안 연구 등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재단의 기본모델을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또 재단 설립 기초조사, 국내 지역문화재단 사례 등에 대한 문헌·환경분석과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초·중·장기 대상 사업과 향후 5년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조사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의 허부기관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재원과 문화정책 면에서 독립성을 갖춘 문화플랫폼 기능을 가진 차별화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익산시 61억원 투입 친환경 농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친환경 인증 확대·급식 모니터링단

생산단지·유기질 비료 등 지원 늘려

익산시가 총 61억원을 투입해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안전성 강화분야 4억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45억원, 품목·관로 확대 6억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 5억원이다.

시는 우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과 GAP(농산물우수관리

리) 인증 확대와 로컬푸드·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 강화 등 농산물 안정성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총 168ha로 익산시 전체 재배면적의 5%를 차지하고 있는 GAP 인증면적도 오는 2024년까지 2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84ha에 불과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오는 2024년까지 총 1300ha로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친환경 농산물 품목·관로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쌀 도정시설 소 포장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중수 익산시 미래농정국장은 “도농복합도시 익산에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필수적인 과제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농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가치있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사랑카드 출시

특별할인율 10% 적용 판매

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종이와 모바일로 운영되던 기존 순창사랑상품권에 체크카드 형식을 더해 출시됐다.

군은 카드 출시와 함께 특별할인율 10%를 적용해 판매한다.

카드의 특별할인 기간은 올해까지이며 이후 할인율은 7%가 적용된다.

개인은 종이와 모바일, 카드를 합산해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단, 단체나 법인 등은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카드 신청은 농협이나 축협, 우체국을 방문해 하면 된다.

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CHAK’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가 출시된 순창사랑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순창군 제공>

이 카드는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서 농협 또는 BC카드 가맹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농협이나 BC카드가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결제시 상품권 차감이 아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된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